13-24 [통권 534호] 2013. 07. 17.

지 속 가 능 성 장 을 위 한

VIP 리포트

▮ 상장기업, 경영위축이 심각한 수준이다

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
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,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http://www.hri.co.kr로 주시기 바랍니다

현대경제연구원

발 행 인 : 김 주 현
편집주간 : 한 상 완
편집위원 : 주 원, 장후석, 백흥기
발 행 처 : 현대경제연구원
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-7
Tel (02)2072-6305 Fax (02)2072-6249
Homepage. http://www.hri.co.kr
인쇄 :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(02)2636-0555

□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.
□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.
□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,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(02-2072-6245)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목 차

■ 상장기업, 경영위축이 심각한 수준이다

Executive Summary ····· i

1. 개요 ····· 1

2. 기업 경영실적 분석 ····· 2

3. 시사점 ····· 7

【HRI 경제 통계】 ····· 8

< 요 약 >

■ 개요

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**기업 활동 위축이 심화**되고 있다.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가 수출·내수 모두 100 이하에서 하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, 기업들의 경영실적도 최근 수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. 특히 **간판 기업인 삼성전자, 현대자동차 실적을 제외하면 여타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큰 것으로 판단**된다. 예를 들어 **종합주가지수는** 금융위기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며 2,000p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으나 **삼성전자, 현대차를 제외하면 현재 1,500p 수준에 불과**한 것으로 분석된다. 이에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실적의 실질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.

■ 기업 경영실적 분석

첫째, 기업들의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. 전체 상장기업의 매출액증가율('10년 18.6%→'11년 6.3%→'12년 5.0%), 총자산증가율('10년 18.6%→'11년 10.9%→'12년 5.0%)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.

둘째, 수익성은 금융위기 이후 절반 수준으로 급락하였다. 전반적인 수익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삼성전자·현대차 실적을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이 '10년 6.9%→'12년 3.9%로 급격히 하락하였다.

셋째, 안정성은 삼성전자·현대차 제외시 더욱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. '12년 전체 상장기업의 이자보상배율(4.0배)과 삼성전자·현대차를 제외한 상장기업의 이자보상배율(2.6배) 격차는 '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. 또한 부채비율도 표면상에 나타난 수치보다 10%p 이상 높아진다.

넷째, R&D 성과는 삼성전자·현대차를 제외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. 삼성전자·현대차는 상장기업 전체 연구개발비 중 55%를, 국내 기업과 기관이 취득한 표준특허의 48.1%를 차지하고 있다. 전체 상장기업의 연구개발비는 '10년 이후 소폭 증가하였지만, 삼성전자·현대차를 제외하면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다.

다섯째,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수익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한 모습이다.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('12년 대기업 5.2%, 중소기업 3.4%)과 이자보상배율('12년 대기업 4.0배, 중소기업 1.8배)은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열악하다.

■ 시사점

첫째, 국내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표면상으로 드러난 것보다 위축 정도가 심하다.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, 현대차를 제외하면 기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. **둘째, IT·자동차산업 이후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.** 서비스산업, 부품소재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제 2의 삼성전자, 현대차를 육성해야 한다. **셋째, R&D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.** 산학연 활동을 강화하고 매칭펀드 등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기술금융 및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. **넷째,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.**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실적 향상을 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. **다섯째, 기업發 경기 불황에 대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.**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향상을 위해 규제 완화, 자금지원 확대 등 지원 노력을 강화하여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.

1. 개요

-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 활동 위축이 심화

·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,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동성 확대, 한반도 리스크 강화, 엔저 등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이 상존

· 내적으로도 투자 여력 감소, 소비 위축 등으로 내수 경기 위축 확대

·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가 수출·내수 모두 100 이하에서 하향 추세 지속

- 기업 경영실적도 최근 수년간 실질적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지속

·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, 현대자동차의 최대 실적치를 감안하면 여타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판단

* 상장기업(금융 제외) 2012년 전체 매출액 1,186조원, 영업이익 62조원 중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하면 각각 1,001조원, 39조원에 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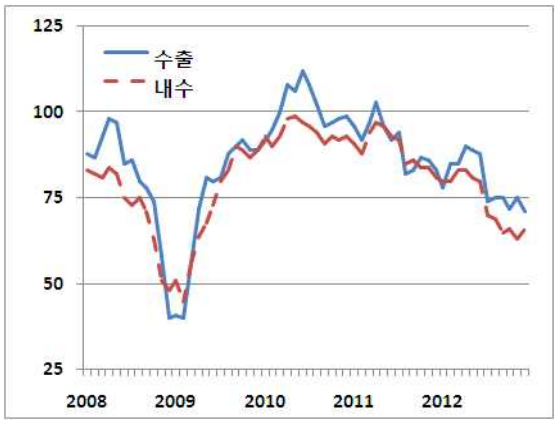
· 종합주가지수(KOSPI)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며 2,000p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으나 삼성전자, 현대차 효과를 제외하면 현재 1,500p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[1)]

- 이에 기업 경영실적의 실질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

· 분석 내용 : 기업 전체, 규모별 주요 재무비율(성장성, 수익성, 안정성)을 삼성전자, 현대차 실적 제거시와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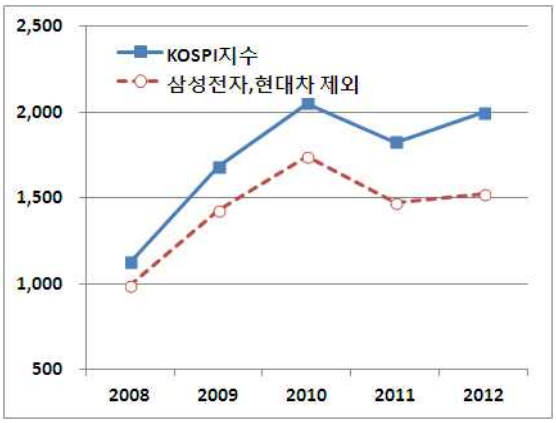
· 분석 자료 : 거래소 상장기업(2012년 금융 제외 683개) 개별 재무제표

<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 >



자료 : 한국은행.

< 종합주가지수(KOSPI) 추이 >



자료 : 한국은행, 한국거래소.

1) KOSPI 지수 증가율과 시가총액 증가율을 비교하여 신규상장 및 폐지 등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반영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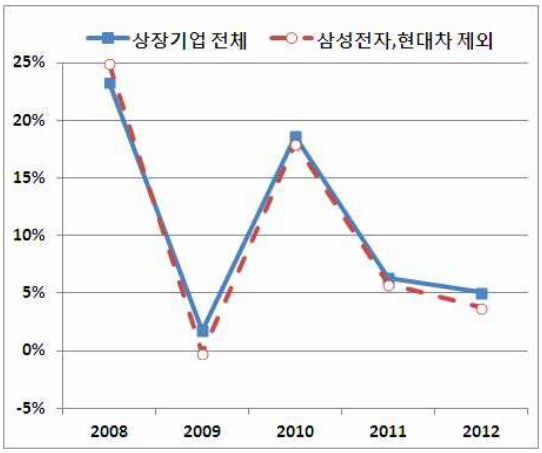
2. 기업 경영실적 분석

○ 성장성[2] : 최근 3년간 기업들의 성장성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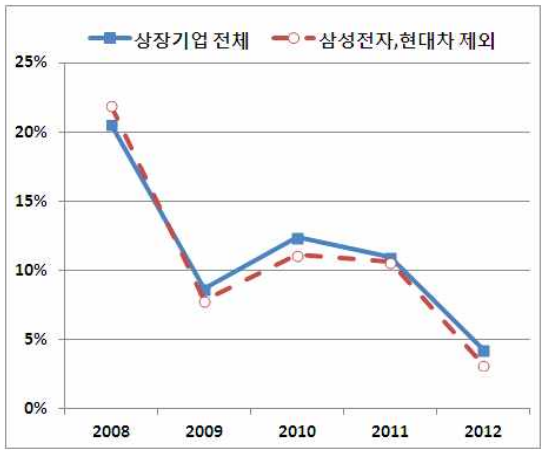
- (매출액증가율) 금융위기 전후 큰 폭의 증감을 보이던 전체 상장기업의 매출액은 2010년 이후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
  - 전체 상장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010년 18.6%에서 2011년 6.3%, 2012년 5.0%로 하락
  - 삼성전자·현대차 실적을 제외한 상장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010년 18.0%에서 2011년 5.8%, 2012년 3.7%까지 하락

- (총자산증가율) 전체 상장기업의 자산 규모 역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에 급격히 하락
  - 전체 상장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2010년 12.4%에서 2011년 10.9%, 2012년 4.2%로 둔화
  - 삼성전자·현대차 실적을 제외한 상장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2010년 11.1%에서 2011년 10.6%, 2012년 3.2%로 더욱 빠르게 하락

< 매출액증가율 >



< 총자산증가율 >



자료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, 한국거래소, FnGuide(2012년 기준 683개 기업).
주: 1)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-9) 중 금융, 보험업을 제외한 비금융업 대상. 이하 같은 기준
2) 매출액증가율, 총자산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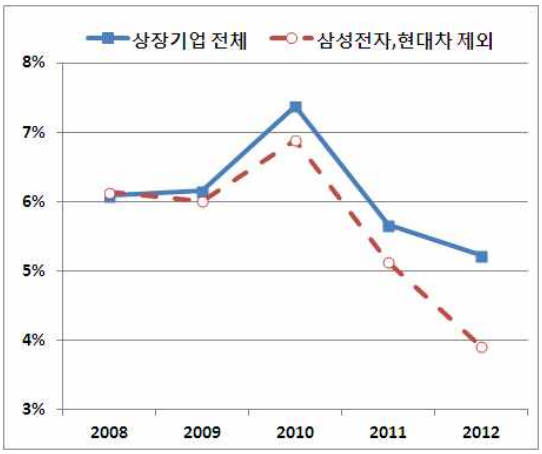
2) 이하의 성장성, 수익성, 안정성 분석은 신규상장 및 상장폐지에 따른 효과는 미반영된 결과임에 유의.

○ 수익성 : 기업들의 수익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삼성전자·현대차 실적을 제외할 경우 금융위기 이후 절반 수준으로 급락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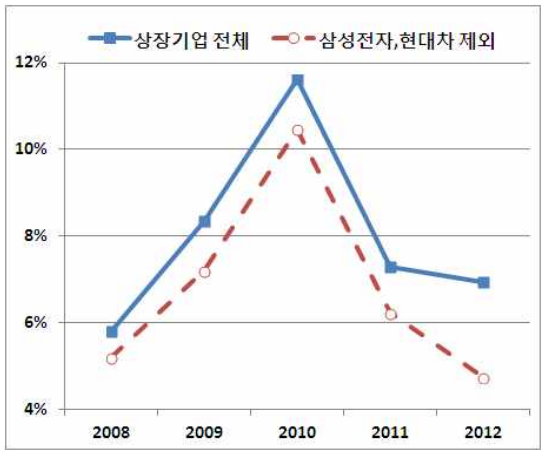
- (영업이익률) 2010년 이후 전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삼성전자, 현대차 실적 제외시 더욱 큰 격차를 보임
  · 전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 7.4%에서 2011년 5.7%, 2012년 5.2%로 하락
  · 삼성전자·현대차를 제외한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 6.9%에서 2011년 5.1%, 2012년 3.9%까지 하락
  · 2012년에는 전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률과 삼성전자·현대차를 제외한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률 사이에 1.3%p의 격차가 발생

- (ROE) 자기자본순이익률 역시 삼성전자·현대차 실적을 제외할 경우 하락폭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
  · 전체 상장기업의 ROE는 2010년 11.6%에서 2011년 7.3%, 2012년 6.9%로 하락
  · 삼성전자·현대차를 제외한 상장기업의 ROE는 2010년 10.5%에서 2011년 6.2%, 2012년 4.7%로 더욱 큰 폭으로 하락
  · 2012년 기준 전체 상장기업의 ROE와 삼성전자·현대차를 제외한 상장기업의 ROE 사이에는 무려 2.2%p의 격차가 발생

< 매출액영업이익률 >



< 자기자본순이익률(ROE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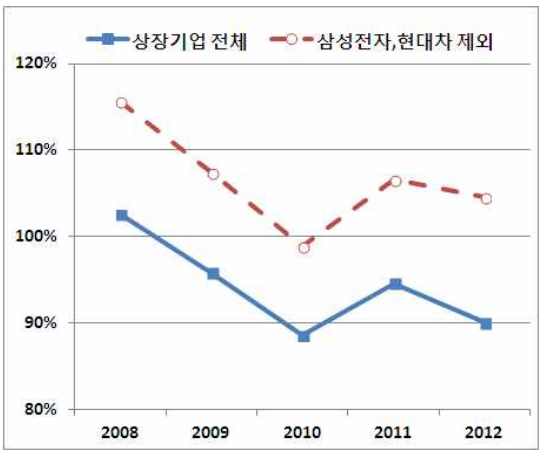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, 한국거래소, FnGuide(2012년 기준 683개 기업).
주: 매출액영업이익률 = 영업이익 / 매출액, 자기자본순이익률 = 당기순이익 / 자기자본.

○ 안정성 : 삼성전자·현대차 실적을 제외할 경우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10%p 이상 높아지며, 이자보상배율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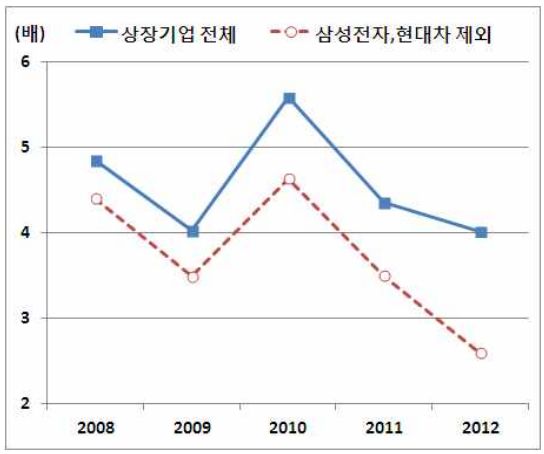
- (부채비율) 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삼성전자·현대차 실적을 제외할 경우 10%p 이상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
  · 전체 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은 2008년 103%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2년 90%까지 하락
  · 삼성전자·현대차 실적을 제외한 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은 2008년 116%에서 2012년 105%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100%를 상회
  · 2012년 삼성전자·현대차의 부채비율은 31%에 불과하여 전체 상장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을 14.5%p 하락시키는 효과

- (이자보상배율) 수익성 악화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 역시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
  · 전체 상장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10년 5.6배에서 2011년 4.4배, 2012년 4.0배로 하락
  · 삼성전자·현대차 실적을 제외한 상장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10년 4.6배에서 2011년 3.5배, 2012년에는 2.6배까지 하락
  · 2012년 전체 상장기업의 이자보상배율(4.0배)과 삼성전자·현대차를 제외한 상장기업의 이자보상배율(2.6배) 격차는 2008년 이후 최고 수준

< 부채비율 >



< 이자보상배율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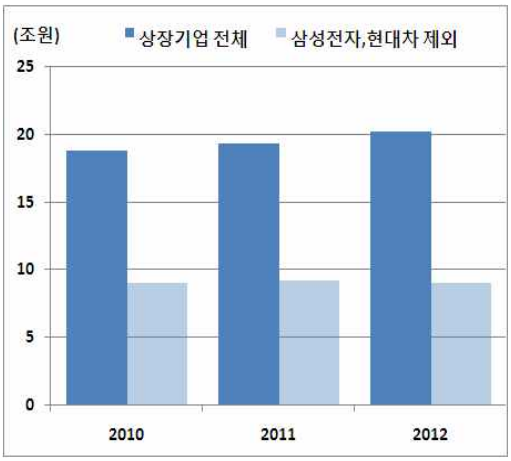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, 한국거래소, FnGuide(2012년 기준 683개 기업).
주: 부채비율 = 부채 / 자기자본, 이자보상배율 = 영업이익 / 이자비용.

○ R&D 성과 : 연구개발비, 표준특허 건 수 등에서 삼성전자·현대차 실적을 제외할 경우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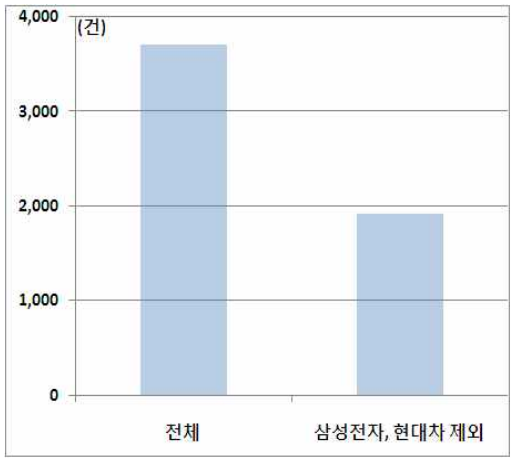
- (연구개발비) 전체 상장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소폭 증가하였지만,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하면 오히려 소폭 감소
  ·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포함한 전체 상장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10년 18.8조원에서 2011년 19.4조원, 2012년 20.3조원으로 소폭 증가
  · 그러나 전체 연구개발비의 55.2%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하면 상장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11년 9.2조원에서 2012년 9.1조원으로 소폭 감소

- (특허) 국내 기업 및 기관이 취득한 표준특허 중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특허가 48.1%를 차지
  · 2012년까지 국내 기업 및 기관이 취득한 3,708개의 표준특허 중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취득한 특허를 차감하면 1,925개에 불과

< 연구개발비 >



< 표준특허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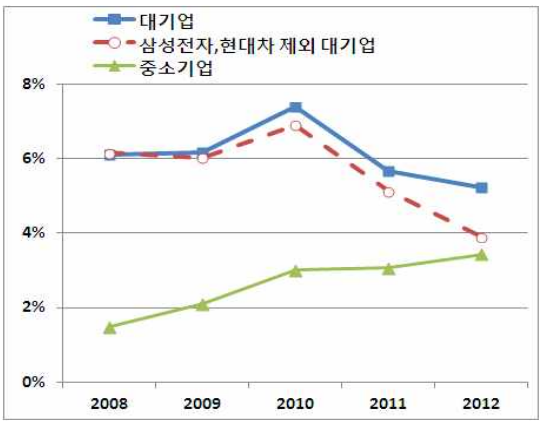
자료: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, 한국거래소, FnGuide(2012년 기준 683개 기업), 표준특허센터.
주:1)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-9) 중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비금융업 대상
2) 연구개발비 = 재무상태표상의 개발비 증가액 + 개발비상각액 +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로 산출하였고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는 미반영
3) 다만, 개별기업이 사업보고서상에 공시하는 연구개발비 금액과는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
4) 표준특허는 ISO, IEEE 등 7개의 국제 표준기구로부터 취득한 특허 의미
5) 표준특허의 '전체'는 상장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과 기관이 취득한 특허 전체를 의미하고 2012년까지의 누적 특허 건 수 기준.

○ 기업 규모별[3] :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한 모습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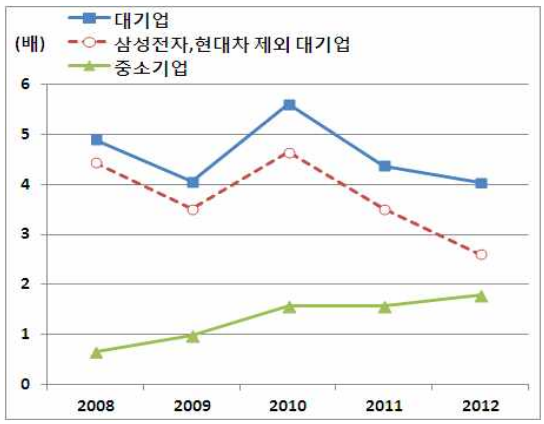
- (영업이익률) 2012년 대기업 5.2%(삼성전자, 현대차 제외시 3.9%), 중소기업 3.4%로 여전히 중소기업의 수익성 열세가 지속
  - 대기업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은 '10년 7.4%→'11년 5.7%→'12년 5.2%
  - 특히 삼성전자 및 현대자동차를 제외하면 '10년 6.9%→'11년 5.1%→'12년 3.9%로 영업이익률 하락세가 확연
  - 반면, 중소기업의 경우 '10년 3.0%→'11년 3.1%→'12년 3.4%로 소폭 상승 추세이나 여전히 대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

- (이자보상배율) 2012년 대기업 4.0배(삼성전자, 현대차 제외시 2.6배), 중소기업 1.8배로 2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
  - 대기업 상장사의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은 '10년 5.6배→'11년 4.4배→'12년 4.0배의 하락세
  - 특히 삼성전자 및 현대차를 제외할 경우 '10년 4.7배→'11년 3.5배→'12년 2.6배로 더욱 빠르게 하락
  - 이에 비해 중소기업 상장사의 이자보상배율은 대기업 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'10년 1.6배→'11년 1.6배→'12년 1.8배로 소폭 상승한 모습

< 매출액영업이익률 >



< 이자보상배율 >



자료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, 한국거래소, FnGuide(2012년 기준 683개 기업).
주: 1)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-9) 중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비금융업 대상
2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을 준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
3) 대기업 582개, 중소기업 101개 기준.

3) 본 장의 분석 결과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상장기업(상대적으로 우량), 표본수 부족(101개사) 등으로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.

3. 시사점

- 첫째, 국내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표면상에 드러난 것보다 위축 정도가 심하다.

·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, 현대자동차를 제외하면 기업 규모, 업종 구분 없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

- 둘째, IT·자동차산업 이후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.

· 발달된 IT 및 자동차산업 인프라와 높은 수준의 기업 경쟁력을 활용하여 제2의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육성

· 서비스산업, 부품소재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

- 셋째, R&D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.

· 정부는 기초 분야에 대한 R&D를 강화하고, 기업은 응용 분야의 R&D 투자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

· 정부-기업-학교가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협동할 수 있는 R&D 환경을 조성하고 매칭펀드 등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기술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

- 넷째, 강소(强小)기업 육성을 통해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.

·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실적 향상을 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대기업-중소기업 간의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

- 다섯째, 기업發 경기 불황에 대비 선제적인 정책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.

·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향상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강구

· 이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,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,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등 기업 활력 도모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 HRI

안중기 연구원 (joonggiahn@hri.co.kr, 2072-6242)
백홍기 수석연구위원 (hkback@hri.co.kr, 2072-6228)

HRI 경제 통계

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

<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>

구 분			2011	2012					2013	
			연간	1/4	2/4	3/4	4/4	연간	1/4	연간(E)
국민계정	경제성장률(%)		3.7	2.8	2.4	1.6	1.5	2.0	1.5	2.6
	민간소비(%)		2.4	1.3	1.0	1.7	2.7	1.7	1.5	2.1
	건설투자(%)		-4.7	-0.4	-3.1	-0.3	-4.2	-2.2	2.4	2.5
	설비투자(%)		3.6	8.8	-3.5	-6.9	-5.2	-1.9	-11.9	1.0
대외거래	경상수지(억 $)		261	26	112	146	148	431	100	395
	통관기준	무역수지(억 $)	308	12	97	75	99	283	57	270
		수출(억 $) 증감률(%)	5,552 (19.0)	1,348 (2.9)	1,401 (-1.7)	1,331 (-5.8)	1,398 (-0.4)	5,479 (-1.3)	1,354 (0.5)	5,589 (2.0)
		수입(억 $) 증감률(%)	5,244 (23.3)	1,337 (7.8)	1,304 (-2.9)	1,257 (-6.9)	1,298 (-1.1)	5,196 (-0.9)	1,297 (-3.9)	5,319 (2.4)
소비자물가 상승률(%)			4.0	3.0	2.4	1.6	1.7	2.2	1.4	1.6
실업률(%)			3.4	3.8	3.3	3.0	2.8	3.2	3.6	3.3
원/달러 환율(평균, 원)			1,108	1,131	1,152	1,133	1,090	1,127	1,085	1,105

주: E(Expectation)는 전망치.